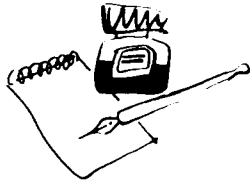


편집 후기



여름호가 발간되자마자 가을호 준비에 여념이 없던 날들, 무엇인가 항상 쫓기는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.

더욱 알찬 내용의 방재와 보험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의 지나침 때문일까?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 같다. 하지만 어렵고 힘든 작업 속에서도 이 세상에 선보일 방재와보험지의 탄생을 생각하노라면 더욱 용기와 힘이 솟아 오른다. <載>

올들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우리 생활을 무척이나 짜증스럽게 하더니만 또 한차례 근년에 보기도문대 폭우로 선량한 백성들에게 달갑지않은 물난리를 겪게했다.

그런 와중에서도 스물세번째로 탄생되는 계간「방재와보험」지를 각계각층의 독자들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혼신을 기울여 보았다.

그러나 결과는 역시 아쉬움과 허전함 뿐이다.

낙엽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독자재현의 아낌없는 충고와 채찍을 바라면서 다음호에 기대를 걸어본다. <永>

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한 여름, 폭우까지 동반하여 우리에게 재산피해를 크게주었던 올여름도 찾아오는 가을이란 계절의 섭리앞엔 어쩔 수 없이 밀려 나나보다. 이러한 좋은 계절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「방재와 보험」이 발간되도록 격려와 충고로써 이끌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<載>

세 일을 두고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해 본다.

방재와보험지 여름호가 발간된지도 3개월 단 하루의 시간도 마음에 여유를 주지 않는다.

방재와보험지를 알차고 멋진 책으로 발간코자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했지만 역시 아쉬움은 지난호와 다를바가 없다.

모든것에 만족은 없는가 보다.

그러나 또 다음 겨울호에 기대를 걸어 본다. 우리 다같이 기대해 보자.

가을호가 만들어 지기까지 유례없는 폭염속에서도 좋은 옥고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계속 방재와보험을 아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 <洪>

투고를 환영합니다

계간「방재와 보험」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.

「방재와 보험」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원고내용

-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
-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
-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
-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
- 화재현장 목격담
- 시, 수필, 수기, 콩트 등 문예작품

□ 보낼곳
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(우편번호 150)
본회회 흥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
문의전화 : 782-8156

□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.

防災와保險

1984년 가을호
계간/비 매 품

(통권제 23호)

등록 / 마-827호 (1973년 10월 11일)

발행 / 1984년 10월 1일

인쇄 / 1984년 9월 30일

발행겸 편집인 / 이대용

인쇄인 / 성전문화인쇄 / 강재수

사진식자 / 대림기획

발행처 / 한국화재보험협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
편집실 / 직통 782-8156

※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